

國政에 끼어든 풍수도참의 현장을 가다 全國취재

「日帝 쇠말뚝」을 찾아서…
그러나 確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風水的 매카시즘이다

金泳三 정부는 「風水정권」인가?

역대 대통령 집무실(청와대 옛 본관건물) · 국립중앙박물관(옛 조선총독부)
철거에 이어 「민족정기 회복」이란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日帝 쇠말뚝
뽑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희한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기독교 장로 金泳三 대통령이 이끄는 이른바 「文民정부」는 쇠말뚝 망령에
넘어가 21세기로 향하는 한국을 미신과 과거에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金容三 月刊朝鮮 기자

「민족정기」란 무언이가

「민족정기」의 뜻을 아는 곳은 원이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 바
람이 전국을 활쏘고 있다.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청와대는 역
대 대통령의 집무실이었던 청와대 옛
본관 건물을 폐허로 만들었다. 문화
체육부는 국책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
관 건물(옛 조선총독부)을 철거 중이
다.

내부부는 전국 名山에 박혀 있다는
「日帝 풍수침략의 산 증거」인 쇠말뚝
을 뽑아냈고, 日帝가改善했다는 고
유 地名찾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
육부는 皇國臣民 양성을 목적으로 했
다는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
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상해 臨政 요인 유해 봉황, 독립유
원: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정책은
공자 확대, 축국 현지의 臨政 청사 복

식말뚝 제거를
일리는 山神祭에
靈宮으로 참식해
되자 머리에 절을
하는 金泰洙
영월군수(원내).

강원도 정선·양양·양구 지역에서
일제시대 쇠말뚝
제거되어 국립민속박물관의
「근대 백년 민속풍물전」에
전시됐던 쇠말뚝들.
이중 日帝가 박은 것으로
증명된 쇠말뚝은 하나도 없다.

● 청와대가 김종없이 暢水의 사업을 지시 ● 확증없이 「日帝가
박은 것」으로 물어가다 ● 국가기관이 地官과 예술인에게 감정을 맡기고,
郡守가 山神祭 지내 미신을 조장 ● 「日帝가 박은 것으로 해달라」고
예걸하는 공무원… ● 日帝시대 때 박은 측량용 대삼각점을 쇠말뚝으로
오해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 ● 쇠말뚝 박는 것은 우리의 오랜 풍습…
日帝가 박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 「쇠말뚝 찾는 정성으로 간첩잡기에
나섰더라면…」이라고 반발하는 주민들

해아릴 수 없을 정도다。가히 전 행
정부서가 동원되어 총력전을 펼치는
듯한 기세다。
「민족정기」란 단어는 金泳三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 공식 행사와 언론
보도에 빈번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민족정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해하는 국민은 흔치 않다。
李熙昇 국어대사전에는 민족정기를
「民族正氣와 「民族精氣」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民族正氣」는 한
민족의 공통 의지로서의 正大하고 至
高한 기풍, 혹은 민족정신의 精華가
되는 기개란 의미. 「民族精氣」는
민족의 생성하는 원기, 혹은 민족의
열이깃들인 바르고 큰 기운으로 설
명되어 있다.
정부가 사용하는 민족정기는 「民族
正氣」일까, 아니면 「民族精氣」일까.
그리고 정부가 주장하는 민족정기의
개념은 무엇일까. 사실 확인을 위해
민족정기란 말을 애용해온 청와대
게 문의했다.
金泳三 대통령의 연설문을 집필해
온 慎右宰 공보비서관은 민족정기의

한자 표기와 개념을 질문하자『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金대통령 연설문이나 보도자료 등에 민족정기 를 한자로 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正氣」인지 「精氣」인지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慎비서관은 「金대통령은 상해 臨政 요인 유해 봉환」臨政청사 복원, 1 천 5백여 명에 이르는 독립유공자 빛 굽과 같은 민족사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민족정기란 말을 써 왔기 때문에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저도 대통령 연설문에 민족정기란 말을 자주 써 왔습니다만 사실 청와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민족정기」에 대한 개념정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상식적인 의미로 써온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민족사의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임정청사 복원 등은 「民族正氣」로, 日帝가 우리 민족의 氣나 기운을 살을 시도한 부분, 즉 쇠말뚝 제거사업이나 地名 변경 등은 「民族精氣」로 표현하는 것

그러나 慎비서관은 끝내 민족정기가 무슨 뜻인지를 밝히지 못했다. 연설문을 담당했던 공보비서관이 민족정기의 뜻을 모르고 썼으니, 대통령도 뜻을 정확히 모른 채 국민에게 「민족정기를 회복하자」고 당부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립중앙박물관(옛 조선총독부) 철거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 공보실에 문의했다. 사실 문체부는 옛 조선총독부 先哲거 後건설정책을 강행하며 홍보차원에서 「민족정기」란 말을 열심으로 써온 부서다. 공보실 담당자는 「민족정기란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통상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묻자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유권해석: 「民族精氣가 맞지만 「民族正氣」로 써 도 무방」

이어서 기자는 「민족정기를 「民族正氣」로 써야 하는가, 아니면 「民族

精氣」로 써야 하는가」를 물었다. 담당자는 「글쎄요, 그것 참 어려운 질문이네...」하면서 한참 동안 망설이다니, 옆 사람에게 문의한 후 「바를 정자를 쓰는 民族正氣가 맞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일부 언론에서는 문체부 뜻과 달리 「民族精氣」로 쓰는데, 이는 어떻게 된 사연인가를 물었다. 담당 공무원은 「우리는 한글전통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을 한글로 만 내보낸다』면서 「신문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 공보관은 「민족정기? 글쎄, 잘 모르겠다. 해답부서에 알아본 후 답하겠다』고 했다. 몇 시간 후 문화정책국 어문과장에게 연락이 왔다. 국립국어연구원에 「민족정기」에 대한 개념정리를 의뢰해 놓았으니 결과



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한다.

다음날 어문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립국어연구원도 「민족정기」의

한자 표기 문제로 논란을 벌였다고 합

니다. 결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민족

정기는 「民族精氣」로 쓰는 것이 옳다

고 결론내렸어요. 그러나 문맥에 따

라서는 「民族正氣」도 꽤찮지 않은가

하는 것이 그쪽 의견입니다』

기자는 민족정기의 한자 표기보다는

이 단어의 뜻과 개념이 더 궁금했다.

그래서 어문과장에게 「문체부가 사용

하는 민족정기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다. 이 질문에 어문과장은

곧혹스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뜻

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뜻이 무엇인

지 재차 질문하자 어문과장은 답변을

피한 채 이런 어운을 낱겼다.

『정신문화연구원에 민족정기의 개

념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이번에는 내무부 차례.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日帝의 쇠말

뚝 제거와 고유地名 찾기 운동을 벌

여온 내무부의 공보실 과장은 「민족

정기를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절하게 쇠말뚝 제거

해 보라고 했다.

다음은 내무부 지방기획과 계장의

설명。

『日帝가 박은 쇠말뚝은 우리 민족

의 氣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쇠말

뚝 제거는 민족의 氣를 되살

리는 의미가 있어요. 日帝가 우리 민

족의 氣를 말살하기 위해 地名도 멎

대로 바꿨으니 원래 이름으로 바꿔

氣를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을마른 氣를 회복한

다는 뜻에서 「民族精氣」로 씁니다』

비단 국가의 정책뿐 아니라 세상만

물의 이해과정에서 용어의 개념정립

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념이 명

확해야 정책의 목표가 뚜렷이 설정되

며, 그 목표를 국민 일반에게 쉽게

이해시켜 동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金泳三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민족정기 회복사업
慶北의 특수시책으로 발달되어 전
국으로 확산

내무부가 추진한 쇠말뚝 제거사업
과 日帝가 改變한 고유地名 찾기는
95년 2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 50주년 기념 역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됐다. 주무부서장인朴昇柱 과장
(내무부 지방기획과)은 전국에서 쇠
말뚝 실태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4월
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책추진 배
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도 일부 국민은 日帝가 국토
의 血脈 차단을 위해 셋물을 농여 부
었다. 明堂의 혈을 질렀다. 地脈을
절단했다는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정신적 피해의식이죠.
광복 50주년 되는 해에 정부가
뚝 제거에 나선 이유는 국민의 막연
한 對日 피해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섭니다」

정책 추진 초기라 그런지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기자는朴과장에게 전 힘의 名山에 박혀 있다는 쇠말뚝이 풍수침략을 입증할 만한 자료 나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를 물었다.朴과장은『객관적인 증거로 파악 할 수 없는 분야』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쇠말뚝 제거와 고유地名 찾기는 경 상북도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다. 경북도청의 吳長弘 씨가 95년 1월 6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했다. 부임직후 道의원 한분에게 민원이 접수됐다. 日帝가 풍수침략을 목적으로 자기 동네의 산 이름을 改惡했으니 원래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보고를 접한 吳長弘 과장은 번개처 럼 아이디어가 스쳐갔다고 한다.

『日帝가 멧대로 바꾼 地名을 원래 이름으로 바꾼다. 日帝가 인물이나 지 못하도록 전국의 名山에 박았다는 쇠말뚝을 뺏는다!』 그리하여 日帝 잔재를 청산한다!』

吳과장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는 더없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다음은 吴과장의 설명이다.

『어린 시절, 고향(경북 영덕) 어른

들에게 「국사당산에 日帝가 쇠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인물이 나질 않는다」

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때를 회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된 거죠』

쇠말뚝 제거와 地名변경 정책 아이디어가 제기되자 경북도청 문화체육과 소속의 일부 학예연구원과 공무원들이 반대했다. 그들은 학문적, 사실적 관점에서 日帝가 쇠말뚝을 박았다거나, 풍수침략 목적으로 고유地名을 改惡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金奎阜 문화재계장(경북도청 문화체육과)의 설명이다.

『쇠말뚝이나 地名변경의 근거가 되는 풍수지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신앙의 일종입니다. 젊은 학예연구원들은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이 정책을 추진하면 미신 조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남나요』

金奎阜 내무와 李義根 행정수석이 전화번호로 확대

그러나 吴長弘 과장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吴과장은 1920년대의 관점에서 풍수지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젊은 공무원들을 설득했다.

『그땐 묘지 부근의 소나무 하나만 베어도 문중간에 사생질단이 날 정도로 풍수지리가 신앙처럼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日帝는 이러한 국민신성을 간파한 다음 교묘한 의도로 쇠말뚝을 박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日帝가 전국 名山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행정부가 나서서 실태조사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죠』

여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吴과



「日帝 쇠말뚝」 발견지점 및 제거일

지 역 명	발견장소(개수)	제거일
강원 (8)	양구군 남면 아촌리	밤골정상 (2개) 95.2.28 3.8
	양구군 남면 청3리	되래지고개 (1개) 95.3.11
	양구군 현남면 전포매리	배산바위 (1개) 95.4.18
	정선군 동면 화암리	마을뒷산 (2개) 95.6.1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뒷골바위 (1개) 95.7.12
	영월군 남면 토교4리	조울재 정상 바위(1개) 95.8.14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리	미암산 운수봉(1개) 95.5.20
	단양군 영춘면 상리	북벽(3개) 95.5.11
충북 (4)	원주군 고산면 소향리	서방산 능선 (2개) 95.5.31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정상 (1개) 95.2.25
경북 (4)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보현산 정상 (1개) 95.3.4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	주구산 중턱 (1개) 95.2.14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늘의산 정상 (1개) 95.4.23

(자료: 내무부)

경북道內에서 官·軍이 동원되어 대대적인 쇠말뚝 수색작업과 日帝가 개악한 地名 사례를 수집하던 2월 초 金塔泰 내무부장관이 경북도청을 초도 순시하게 됐다. 沈지사는 쇠말뚝 제거와 地名변경을 통한 민족정기회 복사업을 보고했다. 金장관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며칠 후 내무부에서 경북도청으로 전화가 왔다. 「慶北에서 시행중인 민

장 의견이 수용되었다. 吳과장은 쇠
말뚝 제거와 고유地名 찾기 내용을
沈寧永 당시 경북지사에게 보고했다.
沈지사가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적
극 동조하는 바람에 道의 광복 50년
역점주진사업으로 확정됐다. 사업시행
초기 吳長弘 과장은 걱정
이 많았다고 한다. 행정조직을 통해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쇠말뚝이
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독교 신자나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
할 경우 그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하게 불어나친 「민족정기」
시작했다. 불과 1주일 만에 청도군 화양읍 소
라리의 주구산 중턱에 박힌 쇠말뚝이
제보되었고, 道에서는 현장조사 후
2월 14일 이 말뚝을 제거했다. 지역
언론에서는 주구산 쇠말뚝을 대서특
필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정성성을 부
여했고, 반대론자들은 입을 다물었다.

회복」 바람은 정책추진에 아무런 영
향도 주지 못했다. 쇠말뚝 찾기와
제보를 통해 道內 각 지역에 알
려졌다. 또 유선방송을 통해 집중홍
보하자 여러 곳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data-bbox="787 6878 789

죽정기 회복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경북도청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입수한 내무부는 쇠말뚝 제거와 찾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안을 청와대 행정수석실에 지휘보고했다.

李義根 당시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현 경북지사)은 내무부로부터 전국의 쇠말뚝 제거와 地名변경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매우 좋은」 의견을 전『이라며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李義根 현 경북지사는 95년 8월 30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엔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던 때였다』며 「마침 내무부에서 좋은 의견이 올라와 적극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李지사는 또 「쇠말뚝 제거와 地名변경은 수석 비서관 회의 때 金泳三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名山에 박혀 있다는 쇠말뚝 제거사업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회장 具閏瑞)이라는 단체와 徐吉洙

교수(서경대 경제학과)는 지난 85년 93년에는 속리산 문장대의 쇠말뚝을 제거하는 등이 분야에서 10여년 활동하며 「쇠말뚝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10여년간 제보를 받고 전국 방방곡곡의 1백 50여 지역을 답사했지만 북한산 백운대와 속리산 문장대 말고 쇠말뚝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북으로 배당되었으니 관련사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具회장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10여년간 제보를 받고 전국 방방

『重명폐과 장비 동원해서라도 쇠 말뚝 뽑는다』

95년 2월 초 청와대 행정수석실에서 具회장에게 쇠말뚝 제거운동의 현황을 묻는 전화가 왔다. 며칠 후에 李義根 당시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이 전화를 걸었다. 李수석은 쇠말뚝 제거운동을 치하하며 「정부가 이 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具회장은 「민간단체가 취미삼아 뽑는다면 몰라도 정부가 나서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한다.

2월 18일에는 내무부 지방기획과의 朴昇柱과장이 具회장을 찾았다. 朴과장은 「국무회의에서 쇠말뚝 제거사업과 地名변경 사업이 결정되어 우리

부서로 배당되었으니 관련사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具회장은 「일본이 한국의 名山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데 중거가 있는가」라고 물더군요. 만약 우리 정부가 쇠말뚝

具회장은 또 「일본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도 덧붙여 설명 했다고 한다.

『우리 단체가 쇠말뚝을 뽑으려 닌다는 소문이 일본에 까지 알려져 일본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일본이 한국의 名山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데 중거가 있는가」라고 물더군요. 만약 우리 정부가 쇠말뚝



쇠말뚝 제거와 고유地名 찾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李義模 경북지사. 李지사는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金泳三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사업에 손을 대면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具회장은 증거가 명확치 않고, 풍수도착 성격이 강한 쇠말뚝 사업에 정부가 참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軍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내무부 차관(朴昇柱)과 장의 말을 들으며 일본은 백운대 쇠말뚝 제거 당시

(1985년)부터 한국의 쇠말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장본인은 오사카 市立大의 노자키 미쓰히코(野崎充彦) 교수。 노자키 교수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한국 전문가다. 일본 문부성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쇠말뚝 실태 조사를 벌였고, 최근에는 「한국의 풍수 가들」이라는 저서를 발간하기도 했

具회장은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쇠말뚝 제거보다는 조사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공무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現代史 전공학자에게 연구비를 제공해서 1920년대 총독부 관련문서를 연구하여 日帝의 풍수침략을 밝혀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는 것이다. 4월 초 내무부에서 "쇠말뚝 제거 관계로 市道 담당자 회의를 하는데 나와서 강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具회장은 그동안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추진했던 쇠말뚝의 발견경위와 제거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날 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가진 정신적 피해의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쇠말뚝은 日帝가 피해의식을 조장하기 위해 몇 군데 박아놓고는 심리전 차원에서 「조선은 망했다」는 소문을 유포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했어요』
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동원해 日帝가 우여곡절 끝에 내무부는 2월 15일

박은 쇠말뚝 실태조사와 日帝가 개악 한 地名사례 조사에 돌입했다. 8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4백 39건。 이중 日帝의 쇠말뚝으로 「밝혀져」 제거된 쇠 말뚝은 8월 말 현재 전국 13개 지역 의 18개다。 모두 18개의 쇠말뚝을 발 견하기 위해 봄 가뭄이 한창이던 시 점에 공무원들이 山野를 헤매고 다녔 고, 포항 지역은 해병대 5백 명이 동원되어 수색작업을 펼쳤다。

사업시행 초기 내무부는 전국 市郡 区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문을 발 송했다.

「日帝 때 전국 곳곳에 설치한 쇠 말뚝을 조사 제거함으로써 민족정기 를 되찾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반성회、유선방송을 비롯한 각종 매 스컴을 통해 홍보활동 강화 ▲마을 원로·향토사학자·문화재위원회 자 문과 협조를 받아 추진 ▲전 내무 행 정기관을 통해 제보 접수 및 필요시 軍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

초기계획에 의하면 쇠말뚝 실태조 사는 2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였

당황한 내무부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역점 추진」이라는 부제가 달린 「쇠말뚝 조사 및 제거 계획」 공문을 재차 보내면서 이 정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독려했다。

누가 박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각 시 도가 지방 행정기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초기에 기세등등하게 「日帝가 박은 쇠말뚝」으로 결론 내렸던 표현 이 자취를 감춘 대신, 일본 언론의 관심에 대한 대응자세를 열설하고 있 다。 다음은 모 도청이 市郡에 보낸 「쇠말뚝 조사 제거의 의」 공문(95년 4월 24일자) 내용。

『쇠말뚝 조사 및 제거작업은 일

의對일본 배격운동이 아님▲쇠말뚝 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꼭 박았다 는 것이 아님。 언제 누가 박은 것인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과거 비정상적으로 인식되 어 온 것을 제거 정리하는 차원의 사 업▲NHK 등 현지 취재에 신중한 대응자세 필요。 순수한 목적의 문화 사업이며 결코 정부가 일본 국민에 대한 규탄이나 불신, 한국인과의 이 간 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을 확실히 해야 함』

아울러 이 공문은 쇠말뚝을 후세의 역사자료로 활용할 것(국립박물관 등 에 전시)과 제거행사를 통해 웅어리 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다。

이 공문은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쇠말뚝을 뽑 는 이유는 「日帝가 민족정기 훼손 목 적으로」 박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 초기 내무부도 「日帝시대 때 설치한 쇠말뚝(철주) 일제조사 및 제거작업」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일본 제국주

의 시대에 꼭 박았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흐퇴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
행정부서가 동워되어 쇠말뚝 제거작
업에 나선 의미가 무엇일까. 내무부
는 누가 박았는지도 모르는 쇠말뚝을
제거하여 국립박물관에 전시하고, 쇠
말뚝 제거를 통해 응어리진 민족의
恨을 풀는 계기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대 때 박은 쇠말뚝」임을 입증해줄 전문가가 없었다. 결국 지방 행정기관은 「日帝시
작 편리한 방법」 즉 동네에서 땅을
증 블 줄 안다는 地官과 「日帝의
로 동원된 것이다.
내 무부가 발표한 「日帝 쇠말뚝 제
거 개요」 자료에도 「풍수학자 등 전
문가 고증」이라고 명기하여 행정기관이
이 풍수학자에게 도움을 받았음을 실
도했다. 충북도청이 관내 지역에 보
낸 공문(문서번호 12200-
2 1 4)에도 「풍수지리 전문가」의 협

조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市長・郡守는 주민체보를 받는 동
시에 지역원로·문화재위원 등의 자
문을 얻어 쇠말뚝을 설치한 소재를 정
학히 조사 및 현지확인(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당해 지역元
老、문화재위원、봉수지리 전문가 관
계인사들의 자문과 군부대 등의 협
조로 확인)…」

결국 日帝가 박은 쇠말뚝의 진위 여부는 地官이나 역술인이 전문가가 되어 고증했다는 뜻이 된다. 혼자 취재 결과 도처에서 地官이나 역술인들을 가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아울러 쇠말뚝 제거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告由祭」란 이름의 山神祭가 거행되었다. 경북 구미시 청 쇠말뚝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본다.

『2월 22일 金烏山에서 제거된 쇠말뚝은 경북도청의 金奎卓 문화재계장

과 대구의 역술인 閔陞萬씨(민승만·한국天人地學회 총재)가 조사했습니
다. 이분들이 「日帝의 쇠말뚝이 블립
없다」고 확인해준 겁니다. 제거행사
가 벌어진 날 春雪이 휘날리는 산에
서 조촐한 산신제도 지냈어요»
공무원은 이런 말도 덧붙였다.
『쇠말뚝을 감정한 閔총재는 대구에
서 아주 용한 분이고, 易學의 권위자
로 소문났습니다. 그 분은 金日成 사
망을 예언했고, 일본 대지진을 예전
하는 기사를 모 일간지에 발표했답니
다』
금오산 쇠말뚝은 길이 60cm, 지름
1·8cm. 담당 공무원은 이 쇠말뚝
발견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민 제보를 받고 가보니 금오산
에 주둔하다 철수한 美 공군기지의
송유관 고정용 말뚝이었습니다. 허탈
한 심정에서 「그냥 갈 수 있느냐」 해
서 미군부대 주둔 당시 쳐놓았던 철
조망을 넘어가 문제의 쇠말뚝을 발견
한 겁니다』

금오산 쇠말뚝의 길이 60cm, 지름 1·8mm. 담당 공무원은 이 쇠말뚝 발견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민 제보를 받고 가보니 금오산에 주둔하다 철수한 美 공군기지의 송유관 고정용 말뚝이었습니다. 헤탈 한 심정에서 「그냥 갈 수 있느냐」 해서 미군부대 주둔 당시 쳐놓았던 철조망을 넘어가 문제의 쇠말뚝을 발견 한 겁니다』

설명했다.

제작시기는 지금부터 60~90년 전 대장간에서 두들겨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암반에 22대가 박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구부려져 있다. 이 장소는 용이 하늘로 용솟음치는 臥佛(누워 있는 부처) 형상인데, 이마의 금소부분에 박았더군요.

기자는 閔씨에게 「이 쇠말뚝이 日帝가 박은 것이 확실한가」를 물었다.

閔씨는 「증거는 없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금오산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日帝의 소행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쇠말뚝 제작시기도 겉부분의 부식 정도로 추정했을 뿐 과학적인 검증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의 諙誼山(눌의산)에서 발견된 쇠말뚝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천시청의 쇠말뚝 담당 공무원은 「주민 제보 외에 日帝의 소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 李忠熙씨(62)에 의하면 1930년 무렵 놀의산 정상에 비행

기항로 지시 관제를 위해 철탑을 세웠답니다. 8·15 해방 이듬해에 주

민들이 이 철탑을 쓰러뜨렸더군요. 이 쇠말뚝은 예술인 閔障滿씨와 金奎阜 문화재계장이 답사후 「日帝의 소행이 분명하다」고 해서 제거된 겁니

실로 믿어야 할까.

기자는 도청의 金奎阜 문화재계장에게 「역술인이나 地官의 감정 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金계장은 「예산 확보가 안됐고 지역내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라고 답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청이 道에 보고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철거된 쇠말뚝은 쉽게 뽑히지 않도록 일부분의 1/3 정도가 요철 모양의 흙이 파여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日帝의 잔혹성에 분노를 느끼게 했다. 이 쇠말뚝은 민족정기 말살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地氣를 훼손한 日帝의 침략사료로서...」

총북 영동군 추풍령면 馬鞍山 운주봉에서도 한 개의 쇠말뚝이 제거됐다. 물음표 형태에 길이 47cm, 무게 2·8kg의 이 쇠말뚝은 바위를 판 다음 납을 녹여 부은 위에 재와 납을 차례로 채웠다. 영동군청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본다.

『이 지역은 해방 후 石山이 있던 곳이어서 혹시 石山에서 박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석산 개발 전부터 이 말뚝을 보았



경북 청도 주구산에서 제거된 쇠말뚝과 독립기념관에 전시중인 쇠말뚝(북한산 백운대에서 제거).

이것들도 日帝가 박았다는 증거가 없어 담당자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다는 주민이 나타나 긴가민가 하며 뺏았습니다」

郡廳에서 山神祭 제상비용 지원

확인 결과 日帝 때 (쇠말뚝을 박아) 혈을 질렸다는 口傳도 없었고, 동네에서 풍수를 좀 본다는 노인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쇠말뚝 박힌 곳 이명당 자리는 아니었다고 한다. 자신이 없어진 군청 관계자는 취재 기자들에게 「日帝가 박았다는 확증이 없으니 「日帝가 박은 것으로 추측되는」 혹은 「日帝가 박았을지도 모르는」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충청매일신문(95년 6월 4일)의 「이제야 뿐만 日帝 쇠말뚝」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날 제거된 쇠말뚝은 日帝시대 때 풍수지리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길이 60cm, 직경 5cm 정도이며 사방 2m 크기의 바위 중간에 박혀 있었 다...」

의혹 투성이의 쇠말뚝은 「日帝의 만행」으로 규정되어 6월 5일 오후

두 시, 성대한 山神祭와 함께 제거되었다. 다음은 영동문화원장이 마을 유자들에게 들린 山神祭 초대장 내용。

「...우리의 민족성과 역사의식을 말살하고도 부족하여 우리 민족의 精氣

마저 끊기 위해 쇠말뚝을 박아 精氣 와 血脈을 끊는 자행까지 하기에 이를 려웠습니다. 우리는 이 쇠말뚝을 뽑아 내어 켜기는 우리 郡民의 精氣를 되찾고, 작게는 우리 郡民의 精氣를 되찾기 위해 축풍령 馬岩山 운수봉 종덕에서 山神祭를 올리게 되었사오니...」

영동군청 관계자는 「山神祭는 문화원이 주관했지만 제상 차리는 비용은 郡廳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山神祭와 쇠말뚝 제거행사는 일본 NHK, TBS(동경방송)가 취재를 나와 녹화해 갔다.

충북 단양군 영종면 上리 北壁 입구에서는 한 곳에서 무려 세 개의 쇠말뚝이 발견됐다. 단양에서 天台宗의 本山 구인사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北壁은 낡았지만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곳으로, 온달

산성과 이곳을 합쳐 「丹陽 10景」이라 부르기도 한다. 절벽 아래 「將軍沼」라 하여 강물이 흐르는 곳의 바위에 세 개의 쇠말뚝이 놓여 박혀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曹太元씨(72·전 영춘면장)는 기자에게『오래 전에 들은 얘기라 가물가물 하지만 이 말뚝은 日帝시대에 박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주변 山勢와 地勢로 볼 때 틀림없다는 것이 다.

단양군 항토사학회원 金東植씨는 1893~94년 항일운동 당시 영춘 인근에서 義兵과 日軍간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면서『抗日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日帝가 將軍沼 앞에 쇠말뚝을 박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거된 쇠말뚝을 확인한 결과 두 개는 길이 45cm에 지름 1·7cm였고, 하나는 길이 18cm에 지름 1·7cm였다. 잡아다녔을 때 빠지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쐐기형으로 만든 것 이 특이했다.

그런데 한 개의 쇠말뚝에 정교한 볼트가 채워진 것으로 보아 연대가

절벽 아래 「將軍沼」라 하여 강물이 흐르는 곳의 바위에 세 개의 쇠말뚝이 놓여 박혀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曹太元씨(72·전 영춘면장)는 기자에게『오래 전에 들은 얘기라 가물가물 하지만 이 말뚝은 日帝시대에 박은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주변 山勢와 地勢로 볼 때 틀림없다는 것이 다.

단양군 항토사학회원 金東植씨는 1893~94년 항일운동 당시 영춘 인근에서 義兵과 日軍간에 큰 전투가 벌어졌다면서『抗日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日帝가 將軍沼 앞에 쇠말뚝을 박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거된 쇠말뚝을 확인한 결과 두 개는 길이 45cm에 지름 1·7cm였고, 하나는 길이 18cm에 지름 1·7cm였다. 잡아다녔을 때 빠지지 않도록 아랫부분을 쐐기형으로 만든 것 이 특이했다.

그런데 한 개의 쇠말뚝에 정교한 볼트가 채워진 것으로 보아 연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다. 金씨에게『1893~94년 경 抗日운동 당시에 이렇게 정교한 볼트를 끼울 수 있다고 보는가』를 묻자 답변을 우물거렸다.

이러한 의문은 현지 주민 禹桂淳씨(82·전 영춘면장)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풀렸다. 다음은禹씨의 설명。

『그것은 日帝의 쇠말뚝이 아니오.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잘 압니다. 만 북벽 아래 배줄을 묶기 위해 박아 놓은 겁니다. 왜놈들이 쇠말뚝을 박았다면 그렇게 작은 것을 박았을 리가 없어요』

山神祭 祭官이 된 영월군수 『郡民이 원해서...』

禹노인은『어린애 장난 같은 짓』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군정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설명했지만 日帝가 박은 쇠말뚝으로 둔갑하고 말았어요. 주민들은 日帝 쇠말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토교 4리 조율,

재에서도 한 개의 쇠말뚝이 제거됐다. 이는 95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제거됨으로써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쇠말뚝은 길이 25·6cm, 지름 1·8cm로 불편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 明堂의 혈을 지르기 위해 박았다. 고 믿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았다. 제보자 林鉉大씨(63)의 증언을 들어본다. 쇠말뚝은 영월에서 제천으로 넘어 가는 舊 도로 옆에 있었어요. 저도 학교다닐 때 매일 쇠말뚝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동네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李여송이 박았다는 설과 日帝가 한일합방 후 박았다는 설 등 두 가지로 알려졌는데, 日帝가 박았다는 사람이 더 많아 이번에 뽑힌 겁니다.

이 쇠말뚝도 고증을 거친 흔적을 찾아보긴 힘들다. 金泰洙 영월군수는 한전기공(한전 발전소 보수 담당회사)에서 수색과 발전·조사·제거 업무를 도맡아 했고, 군정은 협조만 했기 때문에 고증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말뚝이 日帝의 소행인

지 명나라 장수 이여 송의 소행인지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주민朴善祥씨(영월향토사연구회

원)는 「주민 증언」 그리고 쇠말뚝이 박힌 옆에 성황당이 있었다는 점이 日帝 만행의 증거라고 말했다. 성황당이 日帝의 쇠말뚝을 암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봄이다.

이 쇠말뚝이 발견된 때는 6월 13일. 제거작업은 8월 14일에 이루어졌다. 영월군청 담당자는 「광복 5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로 이용하기 위해 제거 일정이 두 달 가량 늦춰졌다고 말했다.

제거작업날 영월군수가 祭官이 되어 山神祭가 거행되었다. 「告由祭란 명목의 山神祭는 山神을 불러오는 電神祭、고축(축문 낭독)、영월군수 배다」에 방영했다. 일본 NHK、TV 등에서도 취재를 해갔다.

『日帝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

金泰洙 군수는 한전기공에서 마련한 두루마기를 입고 축문을 낭독한 후 데지머리에 절을 했다. 金군수는 山神祭 祭官으로 참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땅을 건드릴 때는 山神祭를 지내야 그 지역에 재앙이 없다는 관행이 있습니다. 도로를 내거나 묘를 쓸 때도 山神祭를 지내잖아요. 제가 山神祭에 참석한 것은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였습니다. 郡民이 원하는데 郡守가 참석하는 건 당연합니다.』

쇠말뚝을 뽑고 郡守가 데지머리 앞에서 절을 해야 민족정기가 회복되는 지는 좀 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할 듯싶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남면 야촌리 밤풀 정상에서 두 개, 남면 청3리 되래지고개에서 한 개 등 모두 세 개 기자는 현지 취재 결과 쇠말뚝 중간에 난 구멍이 정교하게 깨여 있고 표면의 부식 상태로 보아 日帝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기엔 너무 새 것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양구사랑회主浩 사무국장에게 이 질문을 하자 李

진 것이 특징。제일 진 것은 2m 58cm, 지름 2.5cm나 되었다. 육각형 형태에 가운데 0.5cm의 구멍이 뚫려 있고, 아래 부분엔 잘 뺏히지 않도록 나사식의 금은 쇠뭉치가 달려 있었다.
남면 야촌리 쇠말뚝은 양구사랑회 회원들이 현지답사 후 「전설따라 삼천리」나 다름없는 주민 증언을 근거로 「日帝의 쇠말뚝」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양구사랑회 회원들은 확신이 서질 않아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의 具閏瑞 회장에게 수차례 감정을 구했다.

쇠말뚝은 具회장이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제거되고 말았다. 3·1절 행사를 빛내기 위해 2월 28일 대대적 인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며 뽑힌 것이다.

기자는 현지 취재 결과 쇠말뚝 중간에 난 구멍이 정교하게 깨여 있고 표면의 부식 상태로 보아 日帝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기엔 너무 새 것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양구사랑회主浩 사무국장에게 이 질문을 하자 李

『日帝가 박은 쇠말뚝이란 증거는 없다. 그러나 日帝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느냐』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쇠말뚝 제거 전에 「日帝의 소행」이라는 조사 절차를 거쳤어야 정상이 아닌가를 물었다. 다음은 李主浩씨의 설명。

『우리도 쇠말뚝 제거 작업에 참여하면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日帝의 소행을 입증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증거도 없이 쇠말뚝을 뽑으면 주민들이 신앙처럼 믿고 있는 「日帝의 만행」을 인정하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이 컸어요』

요

우리국철풀에 앙구에서 제거된 쇠말뚝은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광복 50주년 기념 「근대 백년 민속 풍물전」(8월 2일 ~ 9월 25일)에 정선 · 양양 지역에서 제거된 쇠말뚝과 함께 전시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된 여섯 개의 쇠말뚝 옆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다.

「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기와 脈을 말살 하려고 전국 名山에 쇠말뚝을 박거나, 쇠물을 녹여 봉거나, 숙이나 향나리를 파묻었다... 즉 풍수지리적으로 유명한 名山에 쇠말뚝을 박아 地氣를 놀려 인재 배출과 정기를 누르고자 한 것이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강원도 양양군(현 남면 전포매리), 정선군(동면 화암리)와 임계면 낙천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경북 청도군(주구산) 등에서도 불화실한 주민제보, 역술인이나 地官들의 엉성한 현장조사, 그리고 山神의 祭가 어김없이 되풀이 되었다.

누가 이 땅에 쇠말뚝을 박았는가 도립기념관 제3전시실에 전시된 쇠말뚝의 진상

내무부가 쇠말뚝 제거 사업을 벌이기 전까지 민간인들이 제거한 「日帝

의 쇠말뚝」은 북한산 백운대(16개), 마산 무학산 鶴峰(1개), 속리산 문장대(8개), 북한산 노적봉(1개)의 것이 전부다.

이 중 백운대에서 뽑힌 쇠말뚝은 독립기념관 제3전시관(日帝침략관)에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북한산에서 제거된 이것이 바로 「쇠말뚝 신드롬」의 봉화를 전국에 확산시켰다. 1984년 백운대 山行을 나섰던 「오르내림 산우회」(「우리를 생각하는 모임」의 前身)는 정상에 박힌 쇠말뚝을 목격했다. 그들은 등산객들에게 「倭人들이 서울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박은 鐵柱」라는 설령을 듣고 제거 키로 결심했다.

그들은 쇠말뚝 조사 과정에서 북한산에 살던 할머니(당시 82세 · 백운산 장 주인 이영구씨의 모친)의 증언을 듣게 되었다. 다음은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具聞瑞 회장의 설명。

『할머니는 16세 때 수원에서 북한산장으로 시집왔는데, 시집온 지 얼마 후 시아버지가倭人들과 백운대에



쇠말뚝을 찾기 위해 軍 병력과 지뢰탐지기까지 동원되었다. 주민들은 「쇠말뚝 찾는 정성으로 간첩이나 잡으리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올라가 쇠말뚝을 박았다는 말을 들었다

답니다』

회원들은 할머니의 증언을 결정적

인 단서로 믿고 광복 40주년 되는 1

985년 4월 초부터 5월 7일까지 1

제거작업을 진행했다. 백운대에서 모

두 22개의 쇠말뚝 흔적이 발견됐고

정상에서 11개, 삼각산의 명치끌이라

고 알려진 바위(북한산장 부근)에서

5개를 제거했다.

백운대 쇠말뚝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인사들 간에 치열한 논

쟁이 벌어졌다. 「日帝의 풍수침략이

분명하니 뽑아야 한다」는 제거파와

「풍수침략 목적이 아니라 방위표시용

이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보존파

의견이 대립한 것이다.

보존파의 대표는 작고한 金鼎泰씨

(한국산악회 고문 역임). 그는 이 쇠

말뚝을 「방위측정용」이라고 주장했다

(일간스포츠 85년 4월 3일).

『1927년 봄 들계단, 난간과 함

께 설치된 백운대 쇠막대기는 日人们

이 방위측정용으로 세운 것이다. 당시

韓모씨 등 재계인사 1백 9명의

모금으로 설치했으며, 쇠막대기마다

인천 월미도, 개성 송악산 등의 표시

를 해놓았다』

金씨는 「후일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확실히 알고 난 뒤 뽑아도 늦

지 않다」며 제거작업을 반대했다. 일

간스포츠 기사에는 金씨 외에도 여러

사람이 「백운대 쇠막대기는 방위용」

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徐吉洙 교수(서경대)의 「日帝의 풍

수침략사」 논문에는 金鼎泰씨 증언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927년 일본은 유화정책의 하

나로 3개월간 백운대 공사를 했다.

당시 한일은행 頭取(은행장) 와다 이

치로(和田一郎)가 주동이 되어 財界

1백 9명이 1천 9백 원을 모금하여

공사한 것이다. 1927년 3~4월

때쯤인데 경성일보나 매일신보에서

기사를 본 적이 있다』(기자는 독립

기념관의 李東彦 연구원 도움으로 매

일신보 1927년 2월 15일 신문

을 조사했으나 관련기사를 발견하지

못했다).

백운대 쇠말뚝이 방위 표시 용이었다는 주장들에 대해 徐吉洙 교수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日人들은 조선총독부 낙성식 이듬해인 1927년에 북한산 정비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하고 백운대 바위를 깎아 길을 냈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공사 때 石工으로 일했던 중국인들이 이 작업에 동원됐다고 하더군요. 이 때 日人們은 민족 정기 말살을 위해 백운대 정상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방위 표시 목적이라고 유포한 것이 확실합니다.』

「기증자의 말을 너무 믿었다」

풍수가 崔於中씨도 백운대 쇠말뚝은 「백두산에서 북악으로 들어가는 氣의 脈을 끊을 목적이며, 한강의 힘을 죽이려 했다. 또 藏風(장풍)의 효능을 없애려는 등 서울의 풍수를 잘 기갈기 짚으려는 풍수적 呪術(월간 「산」 85년 10월)로 정의했다. 그러나 崔於中씨、徐吉洙 교수、具閏瑞 회장 등 어느 누구도 日帝가 풍

수침략의 목적으로 박았음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문과 口傳이 확실하기 때문에 「日帝의 소행」이라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쇠말뚝이 日帝 침략의 상징으로 전시된 이유는 무엇일까. 독립기념관도 백운대 쇠말뚝을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한 흔적을 찾기 힘들다. 기중자인 「오르내림 산후회」의 말을 너무 믿은 나머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속리산 문장대의 쇠말뚝을

검증할 차례다.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具閏瑞 회장은 1993년 7월 4일에 제보를 받고 문장대 현장을 답사했다. 그 결과 문장대 아래 甘露泉 부근에 박혀 있는 8개의 쇠말뚝을 발견했다. 감로천은 九宮龍頭穴이라하여 예부터 신성시되던 샘이었다고 한다.

속리산 인근에 사는 주민 宋秉仇씨 (70·경북 상주군 화북면)는 젊은 시절 화북국민학교 교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그는 기자에게 「문장대 쇠말뚝은 해방 전에는 본 기억이 없고, 사변 후 (1954년 이후로 기억) 올라가보니 여러 개가 박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쇠말뚝을 日人們이 박았다는 소문이 돌지만 증거는 없어요. 이 동네는 이여송이가 험을 질렀다는 소문도 많

던 등산객이 실족 사망하는 바람에 군청에서 둘출된 쇠말뚝을 잘라냈다고 한다. 具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중배씨 (충북 보은읍 거주)에게 「감로천 입구에 박힌 여섯 개의 쇠말뚝은 내가 박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한다. 김중배씨는 감로천에서 물을 길어 다 팔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1958년 무렵 감로천에 접근하기 쉽도록 여섯 개의 쇠말뚝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물이 흘러나가는 입구에 박힌 두 개의 쇠말뚝은 「日帝가 박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과정에서 김중배씨 (충북 보은읍 거주)에게 「감로천 입구에 박힌 여섯 개의 쇠말뚝은 내가 박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한다. 김중배씨는 감로천에서 물을 길어 다 팔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1958년 무렵 감로천에 접근하기 쉽도록 여섯 개의 쇠말뚝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물이 흘러나가는 입구에 박힌 두 개의 쇠말뚝은 「日帝가 박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어요」

습니다. 문장대의 것은 혈을 지른 쇠말뚝은 아닌 것 같고, 자연을 훼손한 말뚝이라 해서 없애 겁니다.

『제발 日帝의 쇠말뚝으로 해달라』 공연원들 애원

173 全國취재/日帝 쇠말뚝을 찾아서...

宋씨는 『취재를 나왔던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만 모두가 「日帝의 쇠말뚝」으로 기사를 썼다』면서 「신문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문장대 쇠말뚝을 제보한 상주신문 사의 李忠植 상무는 『올 개천절에 쇠수침략을 알리는 비석을 세울 예정』이라고 했다. 李상무에게 「日帝가 박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물었다. 그는 「쇠말뚝을 누가 박았는가 보다는 민족 정기 회복이 중요하다. 문장대 아랫 동네의 어른들 말씀이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은 93년 9월 11~12일 이틀에 걸쳐 일곱 개의 쇠말뚝을 제거했다(한 개는 그

전에 제거). 具회장은 「입구쪽 여섯 개의 쇠말뚝은 환경보존 차원에서, 감로천 입구의 두 개는 민족정기 복원 차원에서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은 사실확인도 없이 일곱 개 모두 「日帝의 소행」으로 과장보도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백운대와 문장대의 쇠말뚝 제거는 우리 사회에 마연히 떠돌던 「日帝 풍수침략설」을 확산시키는 단서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수한 허점들이 발견된다. 백운대와 문장대엔 분명히 쇠말뚝이 존재했다. 그러나 日帝의 풍수침략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다.

쇠말뚝 제거의 전문가로 자리매김 된 具閏瑞 회장, 徐吉洙 교수도 이 점을 솔직히 인정했다. 이들은 日帝의 쇠말뚝으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네 가지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具회장이나 徐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쇠말뚝」 감정 요청을 받고 몇몇 지역에서 조사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 결과 군부대가 박은 것, 목재 전기柱 지지용, 광산이나 산판에서 물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日帝의 쇠말뚝 으로 해달라」고 애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具회장의 설명。

「목포 유달산에 日帝 쇠말뚝이 엄

보아 日帝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 풍수지리 적으로 신성시되는 장소라야 한다. 넷째 일반인의 눈에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한다.

具회장에게 이러한 기준에 의해 내부가 발표한 18개의 쇠말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자 「글쎄요」란 말만 연발했다. 具회장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쇠말뚝 중 일부분에 고리가 달려 있는 것은 「줄을 매달기 위 한 용도가 아니겠는가」하며 日帝의 풍수침략용 쇠말뚝일 가능성을 부인 했다.

첫째 日帝가 기맥을 끊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다는 내용이 口傳되어야 한다. 둘째 쇠의 부식 상태 등으로

청나게 박혀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현장답사를 해보니 日帝가 박은 게 아니라 가로등과 전망대 등 구조물 설치 때 박았던 것을 제거하지 않아 생긴 오해였어요』

대구의 역술인 閔陞滿씨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7월 말 대구 암산공원 근처에서 쇠말뚝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확인도 않고 「日帝 쇠말뚝」이라며 山神祭 지낼 준비를 해 놓았더군요. 제가 확인해 보니 도저히 日帝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日帝의 것으로 해달라」고 애원하는 공무원들을 설득해 山神祭를 위해 불었던 플래카드를 떼고 준비한 음식도 폐기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厭勝風水(염승풍수) 예부터 성행

쇠말뚝 조사작업에 참여한 역술인이나 地官(공무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쇠말뚝을 박았다 해도 민족 정기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

다. 閔陞滿씨는 「산의 쇠말뚝은 코끼리 등에 벌침 놓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풍수가 崔於中씨는 월간 「산」(85년 9월)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大地에 흐르는 阴陽의 氣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 천지우주의 氣가 쇠못 몇 개 박았다고 끊어진단 말인가 없어진단 말인가. 온 산에 쇠못을 박아 보아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具閏瑞 회장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쇠말뚝을 박았나 해서 민족 정기가 죽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민족정기가 죽었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 도 日帝 식민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 다」

日帝가 우리의 名山에 쇠말뚝을 박았다면 名山의 정기를 절단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악점, 즉 풍수에 짐작 못하는 민족성을 악용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具회장의 말은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日帝가 쇠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日帝가 박은 쇠말뚝이건 아니건 쇠말뚝이 존재하는 한 피해의식은 계속됩니다. 국민의 피해의식을 뿌리뽑으려면 눈에 보이는 쇠말뚝은 모두 뽑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인위적으로 풍수를 누르는 행위를 厭勝風水(염승풍수)라 한다. 염승풍수는 고려조부터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李重煥의 저서 「택리지」에는 한양에서 李씨 왕조가 도읍한다는 설이 나돌자 오얏나무(李씨 姓의 상정)를 베어 기운을 죽였다거나 (八道總論 경기도條), 구미 善山의 맥을 끊고 불타는 숲으로 지지고 쇠못을 박았다(八道總論 경상도條)는 내용이 적혀 있다.

朝鮮日報 논설고문 李圭泰씨 칼럼 (85년 8월 1일)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전라남도 장흥 동쪽에 사자산이 솟아 있는데 이 풍수가 사자처럼 세어서 장흥 고을의 번창을 짓누르고 있다는 풍수해석이 나왔다. 이에 고



『속량용 대남각점을 풍수침략용 쇠말뚝으로 오해했다고 증언한 李鳳得씨.』

을 어른들이 모여 사자산 정수리에
커다란 쇠못을 박아 왕성한 풍수기운
을 짓눌렀던 것은 1930년의 일이
었다』

염승풍수 행위는 광범위하고 또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 풍습 중의 하
나이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염승
풍수를 위해 명당에 쇠말뚝을 박았음
을 일증한다.

日帝는 한국을 강제합병한 후 식민
지배를 고도화하기 위해 우리 민족사
상의 근간을 이루는 풍수 연구를 체
계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실이 조선
총독부 축탁 학자 무라야마 지준 村
山智順)의 저서 「조선의 풍수」다. 이
풍수서는 한국인 地官 전기 용의 도움
을 받아 출간된 것이라고 한다(전기
용은 북청 출신으로 조선 말기 참봉
벼슬을 지냈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선총독부 내에 존재하던 「13인
위원회」도 풍수침략의 가능성을
해주는 대목이다. 李夢日 교수(경북
대학 지리학과)의 논문 「한국 풍수 사상
사」에는 「13인 위원회」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한다.

「일본이 이 땅을 강점했을 때 그들
은 한국인 중에서 역리학에 밝은 13명
을 선정하여 소위 「13인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이 땅의 명당·즉 장
군이 나올 자리라든가 영특한 사람이
나올 장소를 물색하여 그 헬맥을 끊
어 놓았다」

慎鑄夏 교수(서울대)도 「日帝의 민
족 말살정책과 민족문제」라는 논문에
서 日帝의 풍수침략을 단정하고 있
다.

「日帝는 당시 한국인들의 다수가
풍수지리를 신뢰하고 산천의 정기를
중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名山의
헬맥에 이를 차단하여 죽인다고 하는
鐵針(쇠말뚝)을 박아 놓았다. 물론
日帝 자신은 풍수지리설을 신앙하지
는 않았으나 한국인들이 이를 신앙하
므로 한국인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주
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과 행동을 취
한 것이었다」

日帝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러일전쟁 전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진
다. 1880년대에 日人들은 한국에

대한 地質과 鎏床 탐사를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파견했다.

□證의 있는데 文證은 없다

1903년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고토 분지로(小藤文一郎)는 우리의 지질과 지형을 연구한 후 「조선산악론」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조선의 산맥 체계(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 등)는 지금까지도 학문의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1904년에 아쓰쇼에이(失洋昌永)가 「한국지도」를 발행하여 본격적인 수탈과 침략의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료들은 日帝가 嚥勝 풍수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즉 心證은 가지만 확실한 物證이 없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日帝가 박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경북도청 金奎卓 계장의 설명。

『역사의 고증에는 文證(문현), 口證(구전), 事證(민속, 사건 등에 관한 고증)이 있습니다. 쇠말뚝은 조선

총독부의 지시공문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보고서, 관련대장 등 문헌기록이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日人们이 조선의 인재배출을 막기 위해 전국 明堂에 쇠말뚝을 박고 혈을 잘랐다는 소문은 광범위하게 口傳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證과 실제 쇠말뚝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문헌적 증거의 有無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쇠말뚝을 日帝가 박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조선총독부 촉탁이었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저서 「조선의 풍수」에 의하면 日帝시대의 직제상 묘지업무는 각 경찰서장 관할이었다고 한다. 日帝는 전국 경찰조직을 통하고 한다. 日帝는 明堂에 대한 보고를 수집해 풍수 침략을 의도적으로 자행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日帝는 뿌리깊은 한국인의 풍수신앙을 이유로 자학과 패배감을 심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당 자리에 쇠말뚝을 박았을 것이라는 점을 신양처럼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 심성 깊숙이 피해의식으로 자리잡은 쇠말뚝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 단서를 찾기 위해 기자는 강원도 화천을 찾았다. 李鳳得씨(78·화천군 하남면 삼화리)는 스물 한 살 때인 1938년 무렵 산림보호국 임시직원으로 화천·양구 일대를 돌며 측량업무를 도왔다고 한다.

측량용 대삼각점과 氣脈단절 쇠말뚝으로 오해

다음은 李鳳得씨의 증언。

『스물 한 살 때 조선총독부 임정과에서 나온 고가 주우첸(高賀忠賢·당시 30세 정도)과 張吉福(당시 25세 정도)이란 사람을 따라 화천 양구 일대를 누비고 다녔어요. 측량기사였던 고가(高賀) 그 사람은 일본 육군 소위 출신인데 태평양전쟁이 나면서 다시 입대했지. 엄영통지서를 받더니 통곡을 하더군. 전쟁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는 「측량을 위해 박아놓은 대삼

각 점을 日帝가 혈을 치르기 위해 박은 쇠말뚝으로 오해했다고 말했다. 대삼각점은 가로·세로가 각각 10cm 크기에 길이가 1m 30cm 정도의 표식이라고 한다. 李씨는 「머리부분의 열자 한가운데 측량기 추를 맞추고 측량을 하는 기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상에 △ 표시와 해발고도가 적힌 곳이 바로 대삼각점이오。 옛날 불화가 오르면 자리엔 영역없이 대삼각점이 있더군요。 대삼각점이란 쉽게 말하면 측량기준점이지。 대삼각점은 조사를 위해 측량을 하면서 전국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은 다음 토지 높은 산에 다 박았답니다。 그런데 나 라 빼진 설움이 좀 커나。 조선 사람들은 전국의 산꼭대기마다 들어서는 이상한 쇠막대기를 보고는 「倭人們이 높은 산에 다 박았답니다。 그런데이 조선에 인물이 못나도록 혈을 치르고 라 빼진 설움이 좀 커나。 조선 사람들은 전국의 산꼭대기마다 들어서는 이 사람들이 산을 오르면서 나에게 위해 아랫마을 장정들을 부역시켰지。

이 사람들이 산을 오르면서 나에게 「倭人們이 혈을 치른 산」이라고 하더니 몽골이 정상에 올라와 대삼각점에 측량기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허허 웃더군。 「여르신들이 저걸 보고 혈을 칠렀다고 그랬구나」하고 허탈해 하며 내려가는 걸 수없이 봤어요。 李씨는 「강원일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국魂 말살만행 치열린다」는 식으로 썼더군」이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李씨는 日帝가 名山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혈맥을 끊기 위해 질러놓은 쇠말뚝이 라고 소문났으니 마을 주민들이 그냥 놔둘리가 있나요。 모조리 파내 망치로 깨부수어 여기 저기 훑어놓았더군。 측량기사 고가(高賀)는 「뒤돌아서면 파내버리는군」하고 혀를 차기도 했어요』

『측량기를 산꼭대기까지 운반하기 위해 아랫마을 장정들을 부역시켰지。 이 사람들이 산을 오르면서 나에게 「倭人們이 혈을 치른 산」이라고 하더니 몽골이 정상에 올라와 대삼각점에 측량기를 세우는 것을 보면서 허허 웃더군。 「여르신들이 저걸 보고 혈을 칠렀다고 그랬구나」하고 허탈해 하며 내려가는 걸 수없이 봤어요。 李씨는 「강원일보 기자에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한국魂 말살만행 치열린다」는 식으로 썼더군」이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李씨는 日帝가 名山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을

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日帝의 쇠말뚝을 믿지 않습 니다. 마을 앞의 용화산에도 쇠말뚝을 박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만 그것 도 대삼각점이었던 곳이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맘만하게 육을 해대지만 측량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합리적 이었어요。 혹시 강패무리인 浪人집단이 몽골에 대明堂에다 쇠말뚝을 박았다면 모를까。倭人们이 쇠말뚝을 박았다는 건 대삼각점을 보고 오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具閏瑞 회장도 「쇠말뚝이 박혔다고 제보한 지역을 가 보면 측량용 삼각점이 박혀 있는 곳이 많았다고 시인 했다。『10여 년간 현지조사를 하면서 측량용 삼각점을 쇠말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수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쇠말뚝 제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지도를 펴놓고, 대삼각점 기점인가 아닌가를 확인합니다』 경북도청의 金奎卓 계장도 주민들 이 측량기점인 삼각점을 쇠말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시인했다.

풍수가들, 죄밀뚝 철거와 쇠밀뚝
제거 요구

우리는 언젠가부터 풍수에 올고 웃는 민족이 되었다. 풍수에 대한 신앙과 같은 애정은 세계화가 시대구호로 자리잡은 金泳三 정부 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가 광복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역점추진한 민족정기회 복사업의 이면에는 풍수학자들의 주장이 자리잡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풍수학자 崔昌祚씨(전 서울대 교수)는 1993년 7월 11일자 경향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북악은 서울의 主山으로 모란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양을 지닌 수려한 산이다. 그 출중한 氣脈이 빠져내려 경북궁 근정전에서 혈장을 펼치고, 그로부터 온 나라에 백두산의 정기를 나누어 주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전통 지리가

(조선총독)의 참자리를 만들어 氣脈의 모줄을 죄고, 國氣의 출발점인 경복궁 남쪽에는 중앙성을 지어 그것이 흘러 나가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들이 생각이다. 그런데 委人들이 국토를 강점한 후 북악의 정기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자리에 그들 두령(조선총독)의 참자리를 만들었을 때 풍수도참적 성격과

이러한 풍수가들의 주장과 내부부의 「쇠밀뚝 제거사업」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名山의 혈맥을 차단했기 때문에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사고는 명당 자리에 부모 산소를 마련하여 險德을 기대하는 풍수도참적 성격과 다르지 않다.

풍수학자 崔昌祚씨(전 서울대 교수)는 알파한 기술로 묘자리나 잡아부모의 險德을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풍수가 아니라 정감록적인 도참설이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학자들의 풍수비판도 날카롭기 그지없다.

朴齊家는 「풍수에 현혹되어 묘지를 찾느라 나침반을 차고 면 거리를 돌아다니며 명당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미신」이라 했다. 鄭若鏞은 「地師(지관)가 명당을 구해 왜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사대부들에게 바치며, 또 지금까지 유명했던 郭璞(곽박), 道詁(無學)과 같은 풍수사들이 자손이 없거나 출세하지 못해 박복한 생을 산 것을 보면 풍수란 믿을 것이 못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풍수가들은〕 내친 김에 서울시청 건물도 빨리 철거해야 하고, 북한산 「풍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풍수를) 내친 김에 서울시청 있는 것들을 모조리 뽑아 내야 수도 있다」

「북악은 서울의 主山으로 모란꽃이 피어나는 듯한 모양을 지닌 수려한 산이다. 그 출중한 氣脈이 빠져내려 경북궁 근정전에서 혈장을 펼치고, 그로부터 온 나라에 백두산의 정기를 나누어 주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전통 지리가

의 氣를 죽기 위해 백운대·인수봉·만경대 주변 곳곳에 박아 놓은 수많은 쇠밀뚝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들을 모조리 뽑아 내야 수도 있다」

「조선의 풍수」를 쓴 무라야마(村

山)도 「풍수는 인간이 창조한 문화경 관의 특성과 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추상적인 자연의 氣에만 관심을 두며,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易理의 呪術의 측면에만 관심을 둔다」고 풍수의 약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족정기 회복은 風水的 매카시즘

우리가 민족정기 회복을 명분으로 과거지사의 청산문제에 몰입하고 있 을 때 일본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 는 일본 영토」라는 항의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

일본이 우리 山河에 쇠말뚝을 박았 는지, 地名을 改惡했는지는 좀더 학 문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모든 國力を 과거청산에 붙잡 아매는 데 성공한 셈이다.

21세기로 향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서 정부는 쇠말뚝 망령에 휩쓸려 官과 역술인을 동원했고, 일부 지역 은 郡守가 참여해 정부 비용으로 山 神祭를 지냈다. 역술이거나 地官을 정부 정책의 파트너로 동원하고, 地

氣를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郡守가 돼 지머리 앞에서 절하는 대목에 이르 면 우리가 祭政一致 시대를 살고 있 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자이 들 정도 다.

그것은 역술인이나 地官들의 「비과

학적이며 미신적인 패단」을 정부가 공식 수용했다는 뜻이며, 풍수적 매 카시즘으로 국민을 선동한 결과가 되 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국민 심성을 기독교 장로인 金泳三 대통령이 이끄는 「文民정부」가 미신 과 과거에 묶어두었다는 뼈 아픈 비 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金泳三 정부는 「민족정기 회복」과 「세계화」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 왔다. 「민족정기 회복하여 세계화의 주역되자」는 표어는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상징한다. 그런데 정책을 입안, 집행, 감독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민족정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내무부는 「그 무엇」의 회복을 위 해 군부대 지뢰탐지기를 동원해 쇠말 뚜를 뽑은 셈이다. 이명을 요구한 지

방 공무원의 말은 여러 가지를 생각 한다.

『쇠말뚝을 뽑으니 속이 후련하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정신나갔다」고 비판하는 주민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쇠말뚝 찾는 정성 으로 간첩잡기에 나섰다면 아마 수백 명의 간첩을 잡았을 것」이라고 비판 하더군요』